광주 택시요금 인상 예고…시민 "가계비 부담" 한숨

기본요금 3300원→4000원 검토
할증시간도 1시간 늘리기로
택시업계도 "적자 해소 어렵다"
기본요금 4600원으로 인상 요구
3월 말 인상 앞두고 모두 불만

광주시가 오는 3월 말 광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와 시민들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업계는 4000원의 인상으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시민들은 올해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택시비까지 오르면 대중교통인 택시를 탈 수 있겠냐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건의한 '광주지역 택시요금 인상안'을 두고 이달 중순 중에 '택시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광주지역 택시요금 인상안은 기본요금(2㎞)을 4000원(기존 3300원)으로 인상하고, 할증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늘리는 방안(기존 밤 12시~다음날 새벽 4시에서 시작시간을 밤 11시부터로 변경)이다.

택시정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광주시는 3월 중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말 택시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2022년 택시요금 조정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유류비 인상, 택시기사 감소로 인한 택시수급 불균형, 부대비용 증가로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19년 이후 4년간 동결된 택시 기본요금으로는 택시운영이 힘들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적자만 지속되게 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 5개 관련 단체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00원의 기본요금 인상안은 광주지역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요금 4600원 인상, 야간할증 밤 10시 ~ 다음날 새벽 4시로 확대, 할증율 최대 40% 인상을 요구했다.

문홍근 전국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LPG만 해도 매달 차량 한대 당 지난해보다 매월10~15만 원이상 더 들고 있는데다 3월에 LPG가격이 또 오른다"며 "손님은 없어 더 많은 시간 운전하지만 수입은 그대로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의 주 연료인 LPG의 광주지역 단가는 지난 2019년 ㎏당 1256원에서 2022년 1932원으로 53% 인상됐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도 택시 업계가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권동규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국장은 "법인택시 회사의 차량 1대 당 손익분기점은 한달 기준 약 411만원이지만, 법인 택시기사의 40%는 손익분기점을 채우지 못한다"며 "그래도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다보니 적자가 쌓여 부도난 법인택시 회사가 많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택시기사는 "다른 지역은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를 100% 지원해 주는데 광주시는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광주시의 올해 택시 지원 예산은 42억 5000만원 수준으로, 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전(48억), 울산(60억)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택시요금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기준 광주시 택시수송분담률은 12.7%로 전국 택시수송분담률(10.8%)보다 높아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빈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민들의 택시 이용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한꺼번에 700원이나 오른다면 가계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김민교(28·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평소 자주 택시를 이용하는데, 기본요금 앞자리가 바뀌면 체감이 상당할 것 같다"며 "아마 택시 이용을 줄이고 버스를 더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거주하는 유인선(여·27)씨도 "기본요금은 올라도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택시기사들의 서비스가 고쳐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할증 시간이 늘어나 손님들이 일찍 집에 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남대 앞에서 곱창집을 운영중인 손모(58)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아직도 일찍 손님들이 가는데, 할증시간이 당겨지면 그만큼 손님이 줄 것 같다"고 걱정했다.

20여년째 택시 운전을 한다는 심우진(65)씨도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기본요금 올리는데 찬성이지만, 아무래도 요금이 오르면 손님이 줄어 빈 택시로 달리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공공요금과 물가가 올라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오월3단체 "특전사동지회와 참배 등 계속 교류"

5대 행동강령 발표…오월어머니집 "5월 영령 기만 정치쇼" 반발

오월 3단체(5·18민주화운동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합동 참배 등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사)오월어머니집 등 오월단체는 "5월 영령들을 기만하는 정치쇼"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오월 3단체는 1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공동 선언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식에서 양측 단체들은 다섯가지 행동강령을 지킬 것을 약속할 방침이다. ▲5·18 정신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 되도록 협력할 것 ▲대동정신을 실천해 국민 대통합을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 ▲계엄군 장병들을 용서·화해 관점에서 위로하고 필요시 법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각 단체들이 상호우호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친선과 교류를 강화할 것 ▲화해와 감사를 실천하는 각종 활동에 동참할 것 등이다.

또한 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국립5·18민주묘지와 국립서울현충원을 오가며 교류 참배를 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월 단체는 4월 1일 특전사 창립일 기념식에 참석하고, 양측 단체가 합동으로 광주시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을 실천한다는 등 계획도 밝혔다.

특전사동지회는 오는 19일 최익봉 총재 등 특전사 출신 100여명과 함께 광주시 북구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할 계획이다. 앞서 오월3단체는 지난달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5·18 당시 숨진 특전사,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은 "전두환·노태우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명령에 의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계엄군(특전사)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다"며 "용서와 화해를 통해 그동안의 악연을 인연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월단체 사이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용서와 화해에 앞서 가해자들의 고백과 증언, 사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사)오월어머니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전사동지회는 전두환과 함께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호용이 초대 회장인 단체"라며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발포명령과 암매장, 인권유린과 폭력에 대해 한 마디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화해와 용서를 한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날을 세웠다.

오월어머니집은 "일부 5·18단체 임원들이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기만적인 정치쇼를 벌인데 대해 그 저의를 밝히고 사죄하라"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빈 국회의원은 국민과 5월영령을 기만하는 정치 행사에 불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를 비롯한 회원들은 광주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가정 방문 지지 호소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가정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60여명의 집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록마감일(22일) 다음날인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운동 기간에도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조합원들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는 없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적발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철거 앞두고 민관협의체 출범

붕괴 사고를 겪었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거 공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사 중 먼지·소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광주 서구청과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 '화정아이파크 안전 실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낙하물 등 위험 요소와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공사장 인근 상인들이 공사 중 콘크리트 가루와 낙하물이 지속 발생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협의체는 서구청과 현대산업개발 인원들로 구성됐으며 광주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지원기관으로 동참했다. 추후 공사장 인근 상인들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현대산업개발은 전했다.

13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방음터널을 이용한 방음 대책, 낙하물 방지 방안, 외부 집진기를 통한 비산먼지 저감 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달 두번씩 정기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안전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철거공사는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시작해 내년 말까지 이어지며, 철거 이후에는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재시공이 이뤄질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길 가던 모녀 묻지마 폭행 광주북부경찰, 20대 검거

길가던 여성들을 이유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길을 걷던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을 폭행한 혐의로 A(29)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모녀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는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이 퇴근길에 북구청 사거리에서 A씨를 발견해 뒤쫓았고, A씨는 범행 1시간여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묻지마 폭행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모녀 극단적 선택 시도 광양에서 30대 딸 숨져

광양에서 모녀가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딸이 숨졌다.

광양소방은 13일 낮 12시 10분께 광양시 광양읍 한 빌라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가 독극물을 마셨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당시 집을 방문한 A씨의 언니가 쓰러져 있는 모녀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B씨는 숨졌고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독극물이 담긴 병들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유서는 발견 되지 않았고, 다른 가족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장애 여부나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7854	1	남구 효덕로291, 102동 11층 1104호 [송하동,금호타운] 127.370㎡ [김경홍1/2지분전부]	아파트	156,500,000 156,500,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제한
2022타경 4258	1	남구 금당로2길4-13, 101동 2층 202호 [진월동,호반아파트] 32.16㎡	아파트	57,000,000 57,000,000	현황조사시점기준관리비약1,160,000원미납
2022타경 5275	1	남구 봉선로127, 13층 1302호 [봉선동,솔뫼럭스케이팰] 159.9037㎡	아파트	932,000,000 932,000,000	
2022타경 67228	1	북구 월동로28, 101동 19층 1909호 [두암동,무등파크맨션] 84.85㎡	아파트	165,000,000 165,000,000	
2022타경 67334	1	광산구 목련로153번길56,706동21층2105호 [운남동,광주운남7단지주공아파트]49.83㎡	아파트	180,000,000 180,000,000	
2022타경 67433	1	북구 설죽로545,102동13층1304호 59.935㎡ [현황조사시점기준관리비약31만원미납]	아파트	179,000,000 179,000,000	
2022타경 68139	1	동구 충심천로88, 102동 5층 501호 [학동,금호베스트빌] 126.2740㎡	아파트	402,000,000 402,000,000	현황조사보고서에의하면관리비2022년5월부터미납
2022타경 70026	1	광산구 하남대로30, 304동 18층 1801호 [하남동,부영사랑으로] 84.819㎡	아파트	341,000,000 341,000,000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4609	1	남구 사동 13-3 756.9㎡ [지상소재대리석매각제외,토지일부도시계획도로에저촉]	대	2,104,182,000 2,104,182,000	현황조사보고서상현재나대지상태
2022타경 66645	1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252-4 1269㎡ [농지취득자격증명요,향후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2022.06.27자사실조회회신서참조]]	과수원	38,070,000 38,070,000	연고미상분묘수기소재.공부상지목과수원이나현황전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2타경 4180	1	나주시 호수로70, 1동1층108호 39.4725㎡ [현황조사보고서에의하면108호공실이나105호거주자가무상으로자신의집기및자재보관장소로사용중]	근린시설	273,000,000 273,000,000	현황조사당시내부일부칸막이설치됨
[자동차,중기]					
2022타경 8427	1	사용본거지:전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 1078 등록번호:89수6377 차명:봉고Ⅲ1.2톤 연식:2013년 [보험사고이력있음,미운행으로인한방전,성능저하등가능성있음.수동변속기등장착됨]	자동차	4,000,000 4,000,000	보관:광산구우신천변길67-17서창다리주차장[010-8466-0864]
2022타경 77508	1	사용본거지:전주시 완산구 ㅍ막골로 11 1동707호[중화산동2가,거성그린맨션] 등록번호:04라1164 차명:에쿠스 연식:2012 [보험사고이력있음]	자동차	7,000,000 7,000,000	보관:광산구산정동156,제3자현대주차장에게보관[010-5550-6424]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3. 2. 28.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3. 3. 7.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굳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한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받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스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써,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1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길호